

《경성기담》펴낸 전봉관 교수

‘식민지 조선시대 살인사건과 스캔들’ 우리 안의 인간 욕망 그려내다

네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와 동시에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여섯 건의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신문과 방송이 연일 보도에 나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아! 오해는 마시길.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책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렇다고 열 건의 사건·사고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전봉관 교수가 《경성기담》에서 풀어낸 이야기들이다. 전 교수는 책 출간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연일 신문과 방송의 포커스를 받고 있다.



의 살인마 유영철도 모두 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와 한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영아 유기 사건 역시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영아 유기 사건은 공교롭게도 《경성기담》 첫 장을 장식하는 ‘죽침정 단두 유아(斷頭乳兒)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식민지 시대, 무지한 시대에만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는 오늘날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단 서래마을 영아 유

기 사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문과 방송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느 역사책에도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전 교수의 원고를 처음 받아본 편집자는 “이거 꼭 〈선데이 서울〉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과거 발행되던 주간지 〈선데이 서울〉에서 자주 접할 법한 책이라는 이야기일 게다. 결국 《경성기담》으로 결정되었지만, 처음에는 책 제목을 《선데이 경성》으로 할까 하는 고민도 있었단다. 그만큼 전 교수의 《경성기담》은 사실적이고 어찌 보면 친근하다. 겉으로는 근엄한 척,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스캔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손금 보듯 꿰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한 둘이겠는가.

‘〈선데이 서울〉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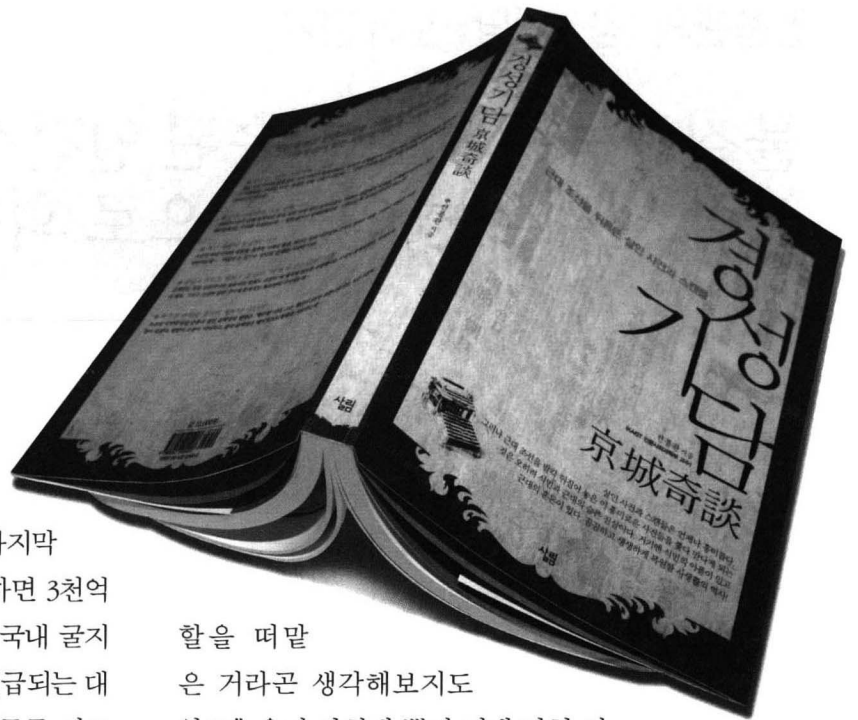
지난해 초, 1930년대 한반도 전역에 열풍처럼 일어났던 골드 러시의 실체를 밝힌 《황금광 시대》를 펴내기도 했던 전봉관 교수가 《경성기담》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과 대형 스캔들에 주목하고 있다. 전 교수는 살인사건과 스캔들에 주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살인사건과 스캔들은 당대에는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쉽게 잊혀지곤 하죠. 그러니 역사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들은 철저하게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죠. 당시의 시대상황을 읽고, 오늘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 고민해 보는 거죠.”

전 교수는 얼마 전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된 탈주범 지강현의 이야기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대

식민지 조선 최고의 스캔들, 최영숙

살인사건도 살인사건이지만, 전봉관 교수가 주목한 ‘근대 조선을 뒤흔든 스캔들’은 요즘 같은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1운동 민족대표의 한 사람이요, 교육자인 박



회도의 '키스 내기 화투로 시작해 여제자의 정조를 유린한 것과 같은 사건은 지금도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일어나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장인이었지만, 오늘날로 환산하면 3천여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윤택영의 이야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으나 회대의 사기꾼으로 취급되는 대우의 전 회장을 생각나게 한다. 3천여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호화의 극치에 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은 고작 300원(현 가치 3천만 원) 뿐이라는 대목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29만 원 남짓이라고 큰소리치던 전직 대통령을 생각케 한다. 이처럼 《경성기담》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봉관 교수가 애정과 돈, 가정사 등 6개의 스캔들에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스캔들인 '조선 최초의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사'이다. 읽기에 따라서는 별반 큰 스캔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전 교수는 "이것이 '조선인들'의 최대 스캔들"이라고 강조한다. 최영숙은 조선인 최초로 스웨덴에 유학해 경제학사가 되었다. 거기에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웨덴어 등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스웨덴 유학에서 돌아와 할 수 있는 일은 '콩나물 장사'였다. 조선의 어느 직장도 최영숙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27세의 나이로 고단한 삶을 마감해야 했다. 전 교수는 "능력 있는 여인을 굶어죽다시피 만든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라며 "그 현실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여전히 모든 여성들의 스캔들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곤 한마디 덧붙인다.

"세상은 잘난 여성들을 보면 '아이나 잘 키울 일이지' 하고 불평을 합니다. 남성들이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역

할을 떠맡은 거라곤 생각해보지도 않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막혀 있는 남녀 불평등은 최영숙이 살았던 1920~3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반 없다.

식욕망의 근원을 밝혀준다

전봉관 교수는 '사람 냄새 나는 인문학을 그리며'라는 제목의 에필로그에서 "인문학에는 영웅과 역적, 천재와 둔재는 있어도 정작 '사람'은 없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 냄새가 그리웠다"고 고백한다. 아울러 그는 "인문학의 현대적 가치가 물질만능주의에 맞서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떳떳이 주장하려면 인문학은 더 이상 사생활을 감춰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낮고 낮은 기층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스터리 살인사건'과 악취 풍기는 사생활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명망가들을 주인공으로 '스캔들'을 모아 《경성기담》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다.

전 교수는 《경성기담》을 쓰며, 특히 스캔들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삶과 생각에 몰입하려고 노력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 눈길을 주고, 남의 돈을 제 돈 쓰듯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욕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단 그만의 욕망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욕망일 수도 있다. **주문**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